

다산포럼



주윤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지난 11월 4일은 훈맹정음(訓盲正音)이 발표된지 94년 되던 날이었다. 훈맹정음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 점자의 다른 이름으로, 1926년 박두성이 만들었다. 박두성은 교동 출신으로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식민지 시절 맹아학교였던 제생원에서 교사로 일했다. 박두성의 호는 송암(松庵)인데 일설에는 강화도에서 보창학교란 야학을 통해 이몽휘에게 사사를 받았고, 그에게서 '암자의 소나무처럼 절개를 굽히지 말라'는 뜻의 호를 받았다고 한다.

박두성은 이후 조선총독부가 일종의 문명화 선전을 위해 만든 특수학교인 제생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각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제생원에서는 일종의 근대적 직업 교육으로 안마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안마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부학 용어 등을 배워야 했다. 의학 용어를 일본어로 배우고, 더욱이 일본어 점자까지 배워야 하기에 조선인 학생들은 제대로 지식을 배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평양에서 로제타 홀이란 선교사가 뉴욕포인트 점자에 기반해 한글 점자를 만들었지만, 이 역시 자

시각장애인의 글자 훈맹정음(訓盲正音)

음과 모음 체계가 분명한 조선어와는 맞지 않고 글자 수가 너무 많아 조선인 학생들이 익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박두성은 아이들을 좀 더 근대적 지식을 제대로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는 한글 점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제생원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학생들과 '6화사' (六花社)라는 단체를 만들어 점자를 연구했다. 6화사는 당시 표준이 되던 브라이유식 점자가 6개 점으로 되어 있어서 익기도 했지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의 눈과 동음이의어인 '눈'(雪)이 육각형이기 때문에 여섯 개의 꽃이란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당시의 점자 개발 과정은 '맹사일지' 등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국한문 혼용, 가타가나, 초서체 등으로 아주 꼼꼼히 적혀 있다. 우선 10개 정도의 가안을 만들어 놓고, 각 안의 장단점을 시각장애인 학생들과 토론하고 투표를 해서 결정했다고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훈맹정음이다.

박두성 선생은 이런 점자가 실제로 쓰이게 하기 위해 다양한 일을 지속했다. 우선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익힐 수 있도록 통신 교육을 실시했다. 점자를 익힌 시각장애인이 읽을 도서를 점역하고 그리고 점역한 도서를 우편으로 빌려 주는 일종의 점자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렇게 점역된 도서는 200여 종이 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100여 종만 남아 있다. 점역은 점역가와 아연판 등을 이용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점역된 도서는 '3·1운동', '영결김구선생', '천자

문', '우어(이슈우화)', '금삼의 피' 등 역사·문학·사회 등 다양한 주제의 저서를 포함했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이 단순히 직업 교육만 받아서는 안 되고 세상이 변화하는 이치를 알고 교양을 쌓고 배워야 한다는 철학의 반영이었다.

점자 사용의 확산으로 해방 이후 총선거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투표 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술적 준비의 한계로 구현되지는 못하다가 1992년에야 도입되었다. 이후 시각장애인들은 비교적 일찍부터 학업에 집중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 중 국회의원들이 된 사람들은 세 명인데 모두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눈어' 위령공 편에는 공자가 시각장애인 약사 면(冕)을 만나서 자리를 안내하는 장면이 나온다. 공자는 시각장애인이 어색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과 자리에 어울릴 수 있도록 "여기에는 섬돌이 있고, 아무개는 여기 있고 아무개는 여기 있소"라고 세세히 말해 주었다.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어울려 사는 전통은 동아시아의 오랜 역사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급변하는 근대 사회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박두성 선생이 만든 '훈맹정음'과 관련한 유물들이 현재 문화재청에 의해 근대화자료로 등록 예고되었다. 우리는 이런 풍부한 역사를 새로운 공공 역사로 발굴하고 기억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와 문화가 우리 사회에 툭툭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고



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

'온(溫)택트' 적극 행정으로 국민을 편안하게

시간을 나흘만(통상 30일)에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술 원료로 사용되던 주정을 손 소독제 원료로 용도 변경하여 방역 현장에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일은 국세청의 대표적인 적극 행정 사례로 꼽힌다.

적극 행정에는 본청과 지방청이 따로 있지 않다. 광주지방국세청도 적극 행정에 대한 본청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적극 행정을 실시하였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만 15~34세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90% 감면)을 납세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구체적으로는 감면 대상 중소기업 317곳을 표본 추출하여 그중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 자체 제작한 홍보 안내문(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FAQ)을 발송하여 추가 신청하게 하는 등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찾아가는 세정을 펼친 것이다. 그 결과, 관내 55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 239명이 총 1억 7000여 만 원의 근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세원 기반이 약화하고 영세 납세자 비중이 높은 우리 지역의 경제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적극 행정을 추진하였다. 우리청은 모두 채움 신고, ARS 신고, 모바일 신고 등 납세자가 편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영세 납세자들이 여전히 많다. 우리청은 코로나19 감염 차단과 납세자 친화적 세정 환경을 구축하고자 영세 납세자가 신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문자 전송할 경우 정상적인 세무 신고로 처리하는 '사진 문자 신고 접수 서비스'를 적극 행정 과제로 선정·추진하여 신고 기간 세무서 방문 없이 집에서 문자로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본디 '행정'이란 능동성을 포함한 개념이어서 '적극 행정'이라는 말은 '역전 앞'처럼 용어의 중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극 행정이 요구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의 행정에 소극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적극 행정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능동적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생각과 행동, 습관과 관행을 바꾸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춘특독



박준영
동신대 신재생에너지 전공 2학년

대학생 '주린이'가 바라본 주식의 세계

들을 훨씬 많이 만난다. 한 친구는 자신이 차트를 보고 주식 하는 방법을 알았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결국 손해를 봤다. 그리고 일찍이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 다른 한 친구는 "짧은 시간에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라 회사 생활에 집중이 어려워 주식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우리는 '주식'이라는 단어와 '투자'라는 단어를 같이 쓴다. 주식은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가격이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이 창출해내는 가치와 미래에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는나를 보고 투자한다. 하지만 주식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기업의 가치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최근에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빚투'(빚내서 투자)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 빅히트라는 기업 가치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그저 유명하니까 주가가 오르길기 대하고 일확천금을 노렸는데, 주가가 한순간에 급락해 빚내서 투자한 돈마저 잃게 된 것이다. 몇 만 원하는 옷 한 벌 살 때도 조건을 까다롭게 따져보는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선 남의 말 한 마디만 듣고 빚까지 내서 투자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주식 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 패가망신한 사람들은 주식을 어떻게 했길래 돈을 잃게 된 것일까? 메리츠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인 존 리 대표는 주식은

절대 기술이 아니고, 훈련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훈련은 꾸준히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하고 기다리는 훈련이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단기간에 매도하는 습관이 길러진 사람들이 돈을 잃는 지름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주식 투자가 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팔아서 수익을 내고 싶고 조금만 떨어져도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팔고 싶기 때문이다.

그럴 땐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살펴보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부자가 된 이유는 그의 뛰어난 선견지명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기다림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산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전까진 절대 팔 이유가 없다.

물론 아무 주식을 사 놓고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 증권사 포트폴리오나 뉴스 등을 통해 기업과 경영진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그 기업과 한 배를 탔다는 마음으로 신뢰하며 꾸준히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또한 한 번에 큰 수익을 바라고 빚을 내서도 안되며, 항상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건전한 투자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건전한 투자가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만든다.

최근 주식 투자를 시작한 나와 같은 대학생들이 부디 건전하고 즐거운 투자를 하며 주식 투자의 본질을 알아가길 바란다.

社說

국민의힘 '호남 동행' 결국 말뿐이었다

'호남과의 동행'을 약속했던 제1 야당 국민의힘이 광주의 현안 관련 법안에 잇따라 탄축을 걸고 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 등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지역 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1소위가 그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듭된 상정 요구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 안건에서 제외하겠다는 대표적 사례다.

이 법안은 문화전당을 정부 소속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법의 발효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가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배제해 버린, 독단적 소위원회 운영을 목과할 수 없다"며 안건 재상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 '비용이 많이 소요될 법안이고, 고용 문제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

로 개정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지역 의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가 소요 비용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반박했다.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 '5·18 역사왜곡 처벌법'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느냐"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올 들어 수차례 광주·전남을 찾아 '호남에 진 빚이 많다'며 지역 현안 관련 법안 처리와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영남 지역구 의원 등 48명을 '호남 동행 국회의원'으로 지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호남인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다짐이 보여 주기식 허구화가 아니었나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나서서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교생 잇단 확진 '수능 방역' 철저히

2021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12월3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에서 고등학생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어 교육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21일 양성 판정을 받은 광주 610번 확진자는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전남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재소자에 대한 동행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바 있는 광주 607번 확진자의 자녀다. 앞서 광주에서는 광주 남구의 한 여고 1학년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광주 602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또 순천에서는 고3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18일 영암군에서도 고3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수능을 앞두고 고교생들의 확진

판정이 잇따르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역 당국이 즉각 학교 내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전수조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문제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유증상자나 자가격리자가 응시하는 별도시험장을 운영한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을 위해 거점 병원과 병상도 우선 확보했다. 또한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모든 학생에 대한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래도 불안감은 남는다. 수능이란 제도 때문에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에 머물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당국은 만에 하나 '수능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고사장 방역은 물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 22일은 소설(小雪)이었다. 1년 24절기 가운데 스무 번째 절기다. 입동(立冬)이 지나면 첫눈이 내린다고 하여 소설이라는 그런 예쁜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날 전국적으로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차가운 비바람이 매섭게 불어 겨울을 실감케 했다.

계절은 어김없다는데 올 한 해는 유난히도 이상기후가 계속됐다. 지난 4월에는 전국적으로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나더니 5월에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날이 속출했다. 또 6월 평균기온은 22.8도로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7월 평균기온은 22.7도를 기록해 오히려 6월보다 낮았다.

기상청은 올 겨울을 평년과 비슷한 추위 속에서 기습 한파 등 기온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별다른 것 없는 기상청다운 전망이지만 올겨울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등에 따라 민생의 체감 온도는 더욱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흔히들 전장과 재난 등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회의 품격이 드러난다고 한다. 미래를 가능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의 한파 속에서도 다가올 봄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 연대와 배려로 모두가 올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tuim@

겨울의 길목에서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